월요광장



문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년 전 안데스 트레킹을 위해 페루 와 라즈에 갔을 때의 일이다. 도착하자마자 현지 여행사를 통해 3박 4일의 산타크루 즈 트레킹을 신청했다. 그리고 4일 뒤 새 벽, 10여 명의 다국적 트레커들과 함께 여정을 시작했다. 온 세상이 빛나 보일 만큼 정말 화창한 날씨였다. 다들 신이 나서 산에 올랐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 가! 오후가 되면서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이내 폭우가 쏟아졌다.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 부실한 우비는 종잇 장에 불과했다.

고도가 높아지자 어느덧 비는 눈으로 바뀌었다. 스틱을 쥔 손이 너무 시렸다. 고생 끝에 고점인 4750m의 푼타 유니온 에 올라섰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고 봉의 설산은 고사하고 앞사람조차 보이 지 않았다. 문제는 추위였다. 몸이 사시 나무처럼 덜덜 떨렸다. 그냥 트레킹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와라즈로 돌아가고 싶었다. 계속 후회의 감정이 밀려왔다. "빨리 출발할 걸!" 외라즈에 도착한 바로

무엇이 두려우랴. 빗속에서도 춤출 수 있다면

다음 날 출발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나는 여유롭게 움직이고 싶어 4일 뒤에 출발하 는 일정을 선택했던 것이다. 날씨가 이렇 게 되니 그 선택이 너무 후회스러웠다.

제어되지 않는 후회는 곧 화로 바뀌었 다. 나는 난폭하게 걸었다. 한참을 걸어 첫날 야영지에 도착했다. 여행사 직원이 미리 텐트를 쳐 놓았지만 폭우에 멀쩡한 게 없었다. 계속 쏟아지는 비로 인해 모 닥불을 피울 수도 없었다. 너무 심란했 다. 그나마 유일한 위안은 서서 비를 피 할 수 있는 식당용 대형 텐트였다. 그 텐 트 안에 서서 비를 피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따뜻한 코카 차를 마 셔 보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낮 은 신음 소리와 이 부딪히는 소리가 절로 나니 더욱 처량해졌다. 한참을 떨고 있 으니 고산병에 힘들어 하던 이스라엘 커 플이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그 커플이 텐 트 안으로 들어오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 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때였다. 영국인 친구 둘이 식기를 두 드리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 다. 추워서였을까? 노래와 춤은 계속 이 어졌다. 비좁은 식당 텐트는 순식간에 세 계 각국에서 모인 트레커들의 춤 경연장 으로 변모했다. 원 안에 한 사람이 들어 가면 모두 그의 몸짓을 따라서 춤을 췄

다. 마지막 순서는 아르헨티나 친구였 다. 그는 갑자기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 빗속에서 몸을 흔들어 댔다. 우리도 달려가 그를 에워쌌다. 빗속의 어 지러운 군무는 계속되었다.

이어 그가 이상한 동작을 하면서 주문 을 외웠다. 비가 그치고 태양신이 나타 나 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얼마나 시간 이 지났을까?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그리고 이내 해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구름에 가려 있던 웅 장한 설산들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모 두 놀랐다. 우리는 원시 부족처럼 '꺅! 꺅!'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부둥켜안았 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감 사의 기도를 올렸다.

악천후는 축제로 바뀌었다. 외라즈에 도착한 다음 날 떠났더라면, 악천후를 만 나지 못했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 라운 장면이었다. 그날 밤, 젖은 텐트를 닦아 내고 누웠다. 온갖 짜증을 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 한편으로는 일 종의 깨달음 같은 게 찾아왔다. 악천후 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행은 즐거울 수 있으며, 힘든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우리 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자각했다.

그것은 여행이 가르쳐 준 삶의 기술이

었다. 여행은 내게 비가 그칠 때까지 마 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빗속에서 춤을 출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왜 뜬금없 이 오늘은 3년 전 이야기를 꺼낸 것일 까? 얼마 전 읽은 소동파의 '정풍파' (定 風波)라는 시 때문이었다. 중국 북송 시 대의 시인 소동파는 정쟁에 자꾸 휘말려 오랜 귀양살이를 했다. 그러나 그는 귀 양을 추방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여행 처럼 즐겼다.

그가 한번은 황주 근처 사호로 가던 중 에 비를 만난 일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비에 낭패스러워 했으나 오 직 그만은 시를 읊조리며 빗속을 천천히 거닐었다. 얼마 있지 않아 비가 멈추자 그는 이 시를 지었다. 그의 시를 읽는 순 간, 나는 다시 3년 전 빗속에서 춤추던 시공간으로 돌아갔다. 무엇이 두려우랴. 빗속에서 춤출 수 있다면!

"숲을 뚫고 나뭇잎 두드리는 빗소리 무 서워 마오/ 시를 읊으며 천천히 거니는 길 무슨 방해 될까/ 대나무 지팡이에 짚 신 신고 걷는 게 말 타는 것보다 좋으니/ 무엇이 두려우랴, 이슬비 속에 도롱이 쓰 고 한평생 걷게 된다 한들"(중략)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 說

사상 최악의 폭염 피해 종합 대책 시급하다

살인적 폭염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 는 가운데 전국이 펄펄 끓고 있다. 연일 하루 최고기온이 사람의 평균 체온인 36.5도를 넘어서면서 38도까지 오르내 리니 죽을 맛이다. 지금의 상태라면 기록 적인 폭염을 보였던 1994년 여름의 악몽 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다. 문제는 이러한 폭염이 8월 상순이나 중순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상 청에 따르면 8월20일 이후에나 평년기온 을 회복할 것이란 예보다.

폭염 피해도 늘고 있다. 올 여름 들어 온열질환자 수는 800명을 넘어섰으며 폭 염으로 숨진 사람만 벌써 8명이다. 무더 위로 폐사한 가축도 100만 마리에 육박 하고 있다. 농민들은 한낮에는 반드시 농 작업을 중단하는 등 자신의 몸부터 살펴 야하겠지만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 기나 송풍기를 이용해 가축들의 체감온 도도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최대 한 달 동 안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니 걱정이다. 이 럴 때일수록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빈곤층 노 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소외 계 층에 더위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폭염 사각지 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비상 구급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제 폭염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재난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 행히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폭염도 자 연재난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의원들 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여 러 차례 발의했고 지금도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에 여러 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법 개정이 이 뤄지면 좀 더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한 대 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온열질환으 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 등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금 당 장 폭염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기후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

10년 동안 시험지 관리 점검 한 번 안 했다니

광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발생한 고3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의 전말이 밝 혀질수록 부실 관리 실태가 도를 넘은 것 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사건 발생 1주일 만인 지난 19 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우선 일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시험지 인쇄실 주변에 CCTV와 방범창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시 험지 유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인쇄 매 수 로그인 정보 확인이 가능한 인쇄기를 도입하고 시험지 관리 지침을 개정해 출 제·인쇄·보관·채점 등 전 과정에서 담당 자의 역할을 상세히 지정하겠다고 밝혔 다. 진즉 이뤄졌어야 할 일들이다.

시교육감의 사과에 앞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도 시험지 유출이 언제 어디서 든 발생할 수 있는 예고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1개 인문계 고교 가운 데 CCTV가 없는 곳이 31개나 됐고 시 교육청은 성적 관리 매뉴얼만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실태조사에 참가한 교육청 관계 자는 최소 10년 이상 일선 학교의 시험 지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교육 청 차원의 점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는 장 교육감 취임 이후 한 번도 시험지 관리 실태 점검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

학부모들이 교육감의 뒤늦은 사과에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이 때문이다. 특히 2년 전 비슷한 사 건으로 광주 학생들이 대입 수시모집에 서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시교육청의 관 리 소홀은 달라지 않았다. 때마침 교육부 도 시험지 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기 로 했다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건 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 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 고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촛불 민 심'이 6·13 지방 선거로 이어지면서 광 주는 물론 전국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가 능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지방 의회가 부활한 지 27주년이다. 지방 자치 실시 는 그동안 우리 삶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권위적인 행정 문화는 축소되 고 소통과 협의의 행정 문화는 확대됐 다. 그 사이 광주광역시의회는 일곱 번 의 시작과 마무리가 있었고, 새롭게 제8 대 의회와 민선 7기가 기대와 희망 속에 7월 1일 출범했다.

7월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 회담 후 체육·철도는 물론 각 분야에서 남북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 이다. 다음 달 열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도 한창일 것이다. 1968년 이후 지 속되어 온 을지연습은 올해부터 잠정 중

제8대 광주시의회 출범, 세 가지 약속

단된다. 한반도 평화의 거대한 물결이 흐 르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로 성사된 6월 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 이후 전 세계는 북미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6일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 과 중국은 각기 '관세 폭탄' 투하로 무역 전쟁에 돌입했다. 우리 국민총생산 (GDP) 대비 약 70%가량의 무역을 미 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서는 대외 환경 변화를 더욱 예의 주시하 며 선제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적 어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모양만 은 피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는 별도로 지역 내에도 굵직한 현안들이 있다. 지난 2014 년 민선6기 출범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3년 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 지 조성,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결국 백 지화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군 공 항·방공포대 이전, 광주형 일자리 첫 사업 인 현대차와 투자 합작 완성차 공장 설립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남북 관계와 지역 현안이 큰 흐름에 따

라 잘 풀려 가기를 기원한다. 지방 의회 의 발전도 희망한다. 지방 의회의 발전 은 진정한 지방 분권을 앞당기는 지름길 이기 때문이다. 지난 6·13 지방 선거는 촛불 민심의 힘으로 주민 주권 시대가 열 린 후 처음 열린 선거로 시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시민의 열망을 생활 속에 구현하기 위해 제8대 광주시 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나갈 의장으로서 지면을 빌려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

첫째, 의원 간 '협업 의회'를 이루겠 다. 23명 의원들이 서로 신뢰하는 가운 데 각종 현안에 대한 간담회•토론회를 통 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겠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 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원 상호 간 동업자 정신과 공동체 정신으로 협력 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둘째, '협치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모 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 람이 있어야 조직이 건강하고 발전한다.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의회를 만들고 싶 다.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여 조 례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시민의 뜻과 의견

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협력의 거 버넌스 시대를 열어 가겠다. 지역 사회 내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로서 의회가 언 제나 시민 속에 함께 있도록 하겠다.

셋째, '혁신을 주도하는 의회'를 만들 어 가겠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 보여 주 기 식 의정 활동, 형식적인 민원 해결, 권 위주의적 자세 등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시민이 주인이 되 는 참된 의회를 만들어 내겠다. 또한 갈 수록 전문화되고 다양화 되는 의정 활동 수요에 대응하여, 분야별로 전문화된 의 원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겠다. 그리하여 우리 광주광역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정 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 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목소리는 의 정 활동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광주시 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언제나 시 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낮은 자세 로 받아들이겠다. 선거 운동 기간 시민 여러분과 손을 꼭 잡아 쥘 때 느꼈던 그 '바람'을 결코 잊지 않겠다. 꼭 기억하고 실천하겠다.

과 인권과 평화의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

향하는 광주의 도시정체성에 부합하는

광주 청년들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부터

모색해야 한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은

일자리 시장을 자처하고 있다. 문화와 역

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야말로

미래형이고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

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은 광

주의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인권, 민주주의, 평화를 향한 한반도

위한 시스템부터 확인하기를 바란다.

無等鼓 🥠

구지가(龜旨歌)

고대 가요 가운데 구지가(龜旨歌)라 는 노래가 있다. 가락국 백성들이 왕을 맞기 위해 흙을 파면서 불렀다는 노래 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일 내놓지 않는다면/ 구워서 먹으리."

작자와 연대가 미상인 구지가는 삼국 유사에 관련 설화가 전해 온다. 4구체 한 문으로 번역된 노래에 대한 해석은 다양 하다. 잡귀를 쫓는 무가(巫歌), 왕을 맞 는 민중의 서사시, 영신제의(迎神祭儀) 중에 부른 노래 등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또 하나, 거북

의 머리가 남성의 성기 를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다. '구워 먹겠다'라

을 유혹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는 구절은 성적인 욕망이자 여성이 남성

고교 시절 고전 문학을 배웠던 이들이 라면 한 번쯤 들었을 내용이다. 사실 우 리의 고전 문학에는 성을 모티브로 한 내 용이 적지 않다. 쌍화점이나 만전춘 등 고려 가요는 조선 학자들이 남녀상열지 사(男女相悅之詞)라 했을 정도로 성적 수위가 높다. 그뿐인가. 신라의 향가인 처용가는 사람으로 변한 역신이 처용의 아내와 동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사립 여고 교사가

수업 중 구지가의 해석과 관련해서 성희 롱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말한,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란 대목의 거북 머리가 남근(男根)으로 해석된다는 교사의 설명 이 발단이 됐던 모양이다. 학교는 민원이 제기된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올해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미투'는 왜곡된 성 인식에 경종을 울린 역사적인 운동이었다.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와 갑질 폐해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높 이 평가된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도

> 있는 법인가 보다. 최근 여성우월주의를옹호하 는사이트 '워마드'가천 주교의 성체 훼손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성체 의식은 미사의 신 성한 행위로 종교를 떠나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이다. 심지어 워마드는 윤봉길 안 중근 의사를 미친 테러리스트라 조롱하는 등 남성 혐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다시 구지가를 언급하자면, 문학에 있 어 성은 주제일 뿐이다. 삼국 시대 이전 유물의 상당 부분은 남근을 비롯해 성적 인 부분이 많다. 혹여 미투나 남성 혐오 가 보편적 상식마저 왜곡하고 무력화하 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2040칼럼



위민연구원 아카데미 소장 법무법인 평우 대표 변호사

'광주: 인권의 도시'라는 도시 정체성 은 5·18민주화운동을 정점으로 한 민주 화 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 도시의 이름 뒤에 정신이 붙어 특별 한 의미를 상징하는 명사로 자리한 경우 는 '광주정신'이 유일하다고 한다. 이 또 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무 관하지 않다.

1980년대에는 매년 5월이 되면 '성지 순례'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광주를 찾기도 했다. 광주를 찾아 민주화 와 5·18 진실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위를 벌였고, 광주 시민들은 그 학생들 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했 다. 영화 '택시 운전사'와 '1987'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정치・사회 적환경의 변화도 작용했겠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청년(지금의 50대)들의 기억을 불 러내는 소재였고, 그 소재를 여전히 가슴 에 담고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는 이제 문화와 예술의 옷을 갈아

역사·문화의 도시에서 청년들의 설 자리를 생각하며

입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 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그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설계한 우규승 설계사는 "광주의 랜드마크는 옛 전남도청 일원의 5·18사적지여야 하기 때문에 전당을 지하로 설계했다"고 말한 다. 역사와 문화, 역사에 대한 기억과 예 술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 '광주의 경험'이 '아시아의 공영'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아시아 의 문화로 광주가 새로운 역할을 자임하 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과정이 '세계청년축제'의 바탕이 되었다. 역사적 기억은 문화와 예 술의 콘텐츠가 되고, 문화와 예술은 다 시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 치를 구현하는 아시아인들의 공동 목표 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청 년들의 이야기와 설 자리'를 위해 청년들 스스로 지혜와 힘을 모아 가는 다양한 시 도가 있어 왔다. 그 결과물의 하나가 '세 계청년축제'일 것이다. 제4회 세계청년 축제가 성료되었다. 세계의 청년들이 겪 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구성된 다양한 행사가 7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신명 을 만들어 냈다.

물론 즐기고 발산하는 데만 그치지 않

고 청년들의 아픈 현실도 확인하고 청년 들에게 주어진 과제도 확인할 수 있는 행 사였다. 이 행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 청 년들의 열정과 다양성과 역량이라고 한 다면 그 모든 가치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 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청 년들의 희망과 연결되고 고통스러운 현 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로 이 어져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다. 세계청년축제를 통해 확인된 청 년들의 능력과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인 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 청년들 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되고 일자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면 그 현실은 금방 확인 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하지만 문화와 예술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예술 분야의 전문 기술을 공부할 수 있는 특성 화대학이나 특목고 하나 없는 곳이 또한 광주이다. 한편의 뮤지컬이 무대에 올려 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전문성 있는 역 할이 필요하다. 문화와 예술의 모든 영역 이 그러하다. 그 역할이 바로 청년들의 일자리이고 먹거리이고 능력과 끼를 발 현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정작 광주 청년 들에게 그 기회는 바늘 구멍일 뿐이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의 새로운 변화는 세계의 이목을 다시 집중시키고 있다. 그만큼 인류 공영을 위한 다양하고 직접적인 광주의 역할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 제 연대, 문화 예술 분야의 콘텐츠 산업 에서 광주 청년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끼를 발현할 수 있는, 그들의 설 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선 내년에 개최될 세계수영선수권대회부터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 다. 아울러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 능력 을 키울 수 있는 문화콘텐츠 특성화대 학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장기

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우선의 과제라는 점을 지적 하고 싶다.

光则日朝 The Kwangju Ilh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사 회 부 220-0664 사 부 220-0693 진 전 남 본 부 220-0642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 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